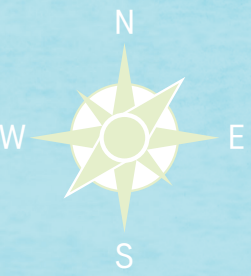


부산 물길 역사 문화탐방 지도



BUSAN, 百聞이 不如一見

부산 물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 1 유서 깊은 연안 고을, 기장의 행정과 관광 유적을 돌아보다
- 2 기장의 아홉 포구, 그 포구길을 따라 해변을 거닐다
- 3 동백섬에서 기원한 해운대, 바닷길 따라 역사와 문화를 찾다
- 4 남쪽 바다와 맞닿은 곳, 자연과 역사를 품은 공간을 걷다
- 5 부산의 축소판 영도, 우리네 해양 문화를 음미하다
- 6 물길이 접하는 길목, 낙동강 어귀에서 바다와 만나다
- 7 부산 최대의 섬, 가덕도의 역사와 문화를 훑어보다
- 8 부산의 젖줄 낙동강, 그 속에 남겨진 유통과 상업의 자취
- 9 삼각주가 만든 공간, 서낙동강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다
- 10 동해와 남해를 함께 품은 해양도시, 부산의 바닷길 자연유산 문화해설
- 11 강의 품, 시의 길 마음의 물길이 강처럼 흘러 바다가 되는 곳



부산 물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6 물길이 접하는 길목, 낙동강 어귀에서 바다와 만나다

- 장림포구**
사하구 장림천 하구에 있다. 한때 대포(砲)진이 있어서, '고다대(古多大)'라고도 불렀다. 2010년대 초반부터 학수연포 구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 그 면모가 일신되었다. '부산의 베네치아'라는 뜻으로 '부네치아'라는 별명이 붙었고 현재는 이 명칭이 공식화되었다.
- 다대포해수욕장**
1970년대 개장하였다. 산업화 과정에 따른 여러 환경오염의 결과 한때 해수욕장 운영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초반 대대적인 정비 사업으로 그 기능이 회복되었다. 다대포해수욕장 일대는 부산 시내에서 손꼽히는 낙조(落照) 명소이다.
- 다대진성 터**
조선 시기 정3품 첨절제사가 부임했던 수군진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윤홍신씨가 대표적이다. 1895년 을미개혁에 따른 군제개혁으로 폐지되었다.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이 다대진성이 있던 자리이다.
- 응봉 봉수대**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꼭대기에 있는 봉수대이다. 다대포 일대의 긴급한 소식을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응봉 봉수대 주변은 잘 정비되어 등산로로 활용되고 있고, 화구가 복원되어 있다.
- 감천항**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항구이다. 감천은 우리말 '감내'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신인 마을'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한다. 원래 감내포로 불리는 작은 포구마 물이었으나 1970년대 말부터 감천항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개대한 항만이 자리 잡고 있다.
- 송도해수욕장**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이다. 1913년 개장되었고 가복섬까지 보트가 다니고 해상야외배대도 설치되었다. 1963년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었다. 한경요정과 시설 낙후로 빛을 못 보다가 2000년대 이후 대대적인 경관 정비로 다시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 천마산 석성 봉수대**
서구 암남동 천마산에 있는 조선시대의 봉수대이다. 아미산 응봉 봉수대의 신호를 횡령산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후 구룡산 봉수대로 역할이 이전되었다. 인근에는 천마산조각공원과 체육공원, 전망대인 천마정 등이 있다.
- 남부민항파제**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방파제이다. 일제강점기 남항 매축 사업의 일환으로 1931년에 축조되었다. 남항사범파제가 공식 명칭이며, 400m 정도의 길이로 끝에는 하안담대가 있다. 건너편 영도 남항동의 남항방파제에는 빨간담대가 있다.

1 유서 깊은 연안 고을, 기장의 행정과 관광 유적을 돌아보다

- 1-1 기장옛길**
기장옛길은 동래와 양산 방면에서 기장현으로 통하는 길이다. 안평 쌍다리재에서 용소골을 거쳐 기장읍성 남문으로 들어간다.
- 1-2 기장읍성과 동헌**
기장읍성은 1391년(공양왕 3)에 기장군 교리에 현 위치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며, 근래 복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동헌은 조선 시기 기장 지역의 지방관청으로, 현재 기장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다.
- 2-1 기장향교**
조선 시기 기장 지역에 세워진 향교이다. 향교는 학문을 강론하는 명륜당과 선현에 대한 제사를 올리는 대성전 두 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장을 교리라는 향교가 있는 마을이라 불은 명칭이다.
- 2-2 기장고름성**
고현성(古縣城)이라고도 하며, 삼국시대부터 고려 시기까지 기장의 읍성이었다. 외적이 침입하면 고을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난하여 농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리 일광산과 셋산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3-1 두모포진**
고려 말 조선 초 왜구를 막고자 설치한 수군진이다. 처음에는 목책과 토성 형태였는데, 삼포왜란 후 석성으로 변모하였다. 임진왜란 시기 일본군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부산포 근처로 이전하였다.
- 3-2 남산 봉수대**
기장 축성과 남대산에 있는 봉수대이다. 10세기 말에 축조되었으며, 간비오산 봉화와 일광포 봉화에 응하여 국가의 긴급한 소식을 전하였다. 발굴조사 당시 고려청자 조각과 건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 4 일광포 봉수대**
일광포 봉수대는 문묘마을과 일광 사이에 위치하며, 남산 봉수대의 신호를 받아 울산의 사정포 봉수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 5 대변리주사창**
'주사(舟師)'는 수군을 뜻하며, 주사창은 수군이 운용하는 전선을 정비하기던 곳이었다. 처음에는 두모포영 소속의 배를 정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두모포영이 부산으로 이거한 후에도 수군이 주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부산 최대의 섬, 가덕도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다

- 외양포마을**
가덕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어촌마을이다. 본래 대항 바깥쪽 목이라는 의미로 외항포(外項浦)라 일컬어졌다. 1904년 12월 일본인이 포진지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해방되기까지 일본군 군사시설로 활용되었다. 군사시설은 해방 후 현재까지 주민들의 거주 용도로 사용 중이다.
- 가덕도등대**
1909년 12월에 건립된 가덕도등대는 동서양의 건축양식이 융합되어 있어 이채롭다. 르네상스풍 건물에 고딕양식의 첨탑과 대한민국 황실의 상징 문양 그리고 일본식 다다미방 등이 그것이다.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0호이며, 2006년 등대문화유산 제8호로 지정되었다.
- 대항 새바지 인공동굴**
1944년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일제는 본토 결전을 준비하면서 해안 경비를 강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 주둔 일본군은 새바지 해안철벽에 인공동굴을 파서 미군의 공습과 상륙작전에 대비하였다. 2017년부터 시작된 '다크투어리즘'의 대표적인 장소였고 옛 구포은행이 있던 자리다.
- 대항 포진지 인공동굴**
대항포구 포진지 인공동굴은 새바지 인공동굴과 마찬가지로 같은 조선인이 일제에 강제 동원되어 구축한 공간이다. 입구에는 거대한 아포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동굴 안에는 전쟁의 참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모형 및 전시물이 있다.
- 연대봉 봉수대**
가덕도에서 가장 높은 연대봉 정상에 있다. 고려 말 왜구의 준동이 극심해지자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여겨지며,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왜군을 쳐서 격멸한 곳이다. 1996년 강서구청에 의해 복원되었다.
- 천성진성 터**
가덕당과 함께 조선 시기 경유당도 수군의 최전방 방어기지였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 부대가 상륙한 곳으로, 이곳을 고두보로 삼아 부산포해전을 성공시켰다.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4호이다.
- 가덕진성 터 및 석화비**
조선 시기 가덕도 수군의 본진이다. 천성진의 가덕진 아래 편제되어 있었다. 가덕진에는 부산진과 마찬가지로 총3품의 수군첨절제사가 임명되었다. 가덕진은 지금의 천기초등학교에 있었다. 천기초등학교 안에는 대원군 척화비가 세워져 있다.
- 늘차 정거마을**
가덕도에는 몇 개의 섬이 떨어져 있는데 늘차가 대표적이다. 한때 굴 종패 양식장으로 명성이 자자하였다. 늘차 정거마을은 전국생태보전지역 습지생태체험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벼화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2 기장의 아홉 포구, 그 포구길을 따라 해변을 거닐다

- 공수마을**
기장 9포 중 하나였던 공수포가 있던 마을로, 기장군 최남단에 위치하며 기장을 시라령에 속해 있다. 공수현(公須洞)에서 마을의 명칭이 나왔다고 하며, '비오개'라는 이름도 전하고 있다. 공양가 켄불구기의 원조 마을이다.
- 오랑대**
조선시대 다섯 섬의 바위가 이곳에 놓여 왔다가 불인 명칭이라는 유래가 전한다. 해변의 바위 위에는 '용왕대'이라고 불리는 당집이 있다. 일출과 파도 사진을 찍는 장소로 유명하다.
- 대변항**
기장군 기장을 대변리에 있는 항구다. 조선시대 이 마을에 대변을 저장하는 공장이 있어 대동고변포(大同庫邊浦)라 불렸는데, 이를 줄여 '대변포'라 하였고 한다. 기장 대벌치 어업의 중심지라, 매년 멸치축제가 개최된다. 용암초등학교에 척화비가 있다.
- 죽성리**
고산 유선도의 애환이 사라지는 활력대, 일행에서 이도재와 기장 군민의 공립했던 삶을 엿볼 수 있는 설화가 응축된 어사암(매 바위) 등이 있는 마을이다. 드림 세트장까지 마을에 세워져서,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 5-1 학리**
학리는 조선 시기에는 '항리포(港里浦)'라 불렸다고 한다. 지역과 다사마 양식이 최초로 실시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학리 해녀촌은 말미잘항을 밋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오정수의 소설 「갯마을」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다.
- 5-2 일광**
일광해수욕장은 일광읍 상성리에 위치하며, 기장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해수욕장과 이천리 사이의 별남공원 입구에는 난계 오영수 갯마을 문학비가 세워져 있는데, 일광 지역이 「갯마을」 소설과 영화의 배경이 되었기 때 문이다.
- 문오성마을**
조선 시기 이 지역의 '문'으로 시작하는 다섯 마을을 합쳐서 문오성 혹은 문오동마을로 불리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이후 한때 출신의 명역으로 들어가 일광의 다른 지역과 문화적 차이가 있다. 특히요에는 부산포까지 세길을 운반하는 조운선이 정박하는 해창(海倉)이 있었다.
- 임랑해수욕장**
일랑해수욕장과 함께 기장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다. 1.5km에 이르는 긴 백사장이 깔려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인근에 바닷속 기념관과 성철 스님에 헌친 일화가 있는 묘관음사가 있다.

8 부산의 전통 낙동강, 그 속에 남겨진 유물과 상암의 자취

- 1-1 구포왜성**
구포왜성은 금정산 자락인 의성산 정상에 있다. 구포의 옛 이름이 감동진(감동포)이어서 감동포성이라고도 불린다. 전형적인 일본식 왜성으로 쌓아 올려졌고, 보초 상태도 나를 양호하여 일본식 성 연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6호이다.
- 1-2 북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북구문화예술회관 지리는 본디 구포왜성의 기장자락(외성)였다. 2000년대 초반 방산센터 건립을 위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일본 전국시대 조리 용구와 중국 명나라 청화백자 조각,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기와 조각 등 많은 유물이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은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다.
- 구포은행**
1912년 윤산정은 중심으로 구포 지역 유자들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은행이다. 당시 상업자본이 필요했던 조선인 자본가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 은행이었다. 경영난으로 1928년 대구은행과 합병되어 해체되었다. 현 우리은행의 대표적인 장소였고 옛 구포은행이 있던 자리다.
- 구포역 구포만세 테마거리**
구포역은 1903년 11월 완공되어 1905년 1월 1일부터 열렸던 경부선의 기차역 중 하나였다. 구포역으로 인해 영남 내륙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부산과도 더욱 밀접해졌다. 지금의 구포역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1985년 새로이 준공한 것이다. 1993년 화약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 구포다리**
1930년 9월에 착공하여 1933년 3월에 완공되었다. 구포다리 개통으로 김해 평야의 농산물들이 이 다리를 통해 구포역에 이송된 후 전국 각지로 수송되었다. 경제개발 시기 산업물자 수송으로 한옥의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현재는 철거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삼막재점거리**
1980년대 중반 이후 낙동강 재첩이 자취를 감추기 전까지 사상구 삼막동 일대는 재첩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낙동강 재첩구기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사상구에서는 삼막재점거리를 조성하였다. 이곳에서는 낙동강 재첩의 역사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재첩 음식까지 맛볼 수 있다.
- 하단포구(황포돛배)**
하단포구는 임자산 내수면 어업과 연계를 어업이 교차하는 어장이었고, 낙동강 하구의 자원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하였다. 햇님공원 어린이놀이터 한쪽에 하단포비가 세워져 있다. 황포돛배는 조선시대 낙동강 상류와 하류를 오가며 현물을 실어 나르던 소형 한선(韓船)을 말하며, 한때 낙동강을 건너는 주민들의 교통수단이기도 하였다.

3 동백섬에서 기원한 해운대, 바닷길 따라 역사와 문화를 찾다

- 센텀시티**
해운대구 제1동과 우2동에 걸쳐 지어진 신도시이다. 1940년 이곳에 일제는 병참 수송을 위한 비행장을 건설하였다. 해방 후에도 이곳은 김해공항이 건설되기 이전까지 부산지역의 공항으로 활용되었다. 공항이 사라진 이후에도 한동안 이곳은 '수역비행장'이라고 불리었다.
- 2-1 간비오산 봉수대**
조선시대 황령산 봉수대의 신호를 받아서 남산 봉수대로 전달했던 봉수대이다. 간비오는 이두식 표현으로 '간 비루터'를 표기한 것이다. 해운대구 우1동 간비오산에 있으며, 해운대 일대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 2-2 동백섬**
해운대 춘천 하구에 위치하는 섬으로, 한때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섬의 남쪽 바위에는 '해운대(海雲臺)'라고 새겨진 각석이 있는데, 해운대의 명칭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최치원 동상과 APEC 하우스, 그리고 연아성 등이 있다.
- 3-1 해운대해수욕장**
1965년 개장한 해수욕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 곳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학생들의 하계 수련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길고 넓은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곳으로 모래축제도 열리고 있으나, 점차 모래가 유실되어 매년 모래를 보충하고 있다.
- 3-2 구 동해남부산 해운대역사**
부산과 포항을 이어주던 옛 동해남부산 기차역 중 하나였다. 1934년 7월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6년 동해선 부선-원광 구간이 개통되면서 폐역되었다. 현재 해운대역사는 문화공간으로 정비되어서 운영 중에 있다.
- 4-1 달맞이이고개**
달맞이언덕으로도 불린다. 1997년에 만들어진 해월정(海月亭)이 있다. 분위기는 음식장과 커피숍이 있고, 추리소설가 김성중이 운영하는 추리문학관과 미술 갤러리 등 문화시설도 위치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 4-2 청사포**
청사포(靑沙浦)는 '푸른 모래가 있는 포구'라는 뜻이다. 혹은 '청사포(靑蛇浦)'라고도 하는데, 망부암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김씨 부인을 푸른 구렁이가 채어갔다는 설화가 전하고 있다. 근래에는 마을 근처에 다릿돌전망대가 들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 4-3 송정해수욕장**
구덕포와 죽도 사이에 형성된 모래사장에 만들어진 해수욕장이다. 민박집이 즐비하던 이곳은 현재 호텔과 펜션, 음식점들이 가득 차 있다. 인근에 죽도공원이 있고 그 끝에 송림정(松日亭)이 있다. 한때 죽도공원은 데이트 코스로 유명하였다.

9 삼각주가 만든 공간, 사낙동강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다

- 대저수문**
사낙동강 입구인 대저동과 김해시 마동면의 경계에 1934년 설치한 수문이다. 대동수문이라고도 한다. 대저수문 설립 계기로 김해평야가 조성될 수 있었다.
- 대저수리조함 터**
수리조함은 일제시대에 관개시설이나 치수(治水)사업을 위해 토지나 가옥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직한 법인체를 말한다. 강서구청 무렵에 조함 건물과 창고가 있었지만, 현재 철거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건물 마당에는 대저수리공사기념비가 있다.
- 1-1 양덕온 가족**
대저에 있는 적산(일식)가족이다. 김해평야 조성으로 일반인 자취들이 이곳에 살았다. 해방 후 적산이 되었다가 정부수립 후 만민에 분화되었다.
- 3-2 낙동강철벽리 성당**
1926년에 지어진 적산(일식)가족이다. 규모나 외형이 양덕온 가족과 흡사하고 보초 상태도 좋아 근대건축물로 함께 지정하였다. 1990년대에 음식점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폐업한 상태다.
- 4-1 신명마을 비행기 격납고**
일제가 대저 일대에 공군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만든 비행기 격납고이다. 해방 이후 신명마을 주민들이 이를 개조하여 '굴집'이라 부르며 가정집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 4-2 죽도왜성**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낙동강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1593년에 만든 왜성으로, 구포왜성의 본성이다.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7호로 지정되어 있다.
- 5-1 녹산수문**
일제시대 김해평야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대저수문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다. 1934년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하구둑 수문이다. 1992년대에 녹산 제2수문을 건설하였다.
- 명지염전 터 / 김상후-홍재정 염세불망비**
명지녹산 일대에는 염농자취 최대의 염전이 있었다.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명지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2기의 비석으로 옛 염전의 자취를 간접적으로나마 가능케할 수 있다.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2007년 6월 물속도 습지에 건립되었다. 망원경을 통해 철새를 관찰할 수 있고, 인근에 옛 보너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자리에 조성한 메모리얼파크와 낙동강하구범자연생태관 등이 있다.

4 남쪽 바다와 맞닿은 곳, 자연과 역사를 품은 공간을 걷다

- 제1리등대**
부산에서 한촌해는 가장 오래된 등대로, 1905년 6월 처음 불을 밝혔다. 2001년 등대 주변이 매립되면서 그 기능이 멈추었다. 2006년 등대문화유산 제23호로 지정되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시민에게 개방된 감만시범부두 내에 있다.
- 무민사**
최영 장군을 묘신 사당이다. '무민(武敏)'은 최영 장군의 시호이다. '무민공' 최영 장군 사당보존회에서 1년에 한 번 제례를 올린다고 한다. 남구 감만1동에 있다.
- UN기념공원**
유엔모지로 불렸다가, 2001년 UN기념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UN기념공원은 크게 상징구역, 주요역, 참전용사묘역으로 구분된다. 매년 11월 11일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된다. 인근에는 UN조각공원과 평화공원이 있다.
- 신선대**
신선대는 예로부터 이름난 경승지로 남구 용당동 산 170일대에 있다. 통일신라 말 최치원이 신선이 되어 유람했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라는 설이 전한다. 정상에 서면 오륙도와 조도가 보이고, 맑은 날에는 대마도의 전경을 볼 수 있다고 한다.
- 오륙도**
남구 용호동에 있는 바위섬들로, 발삼굴삼송곳삼수리삼병삼출삼 등 여섯 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보는 위치에 따라 다섯 개의 섬으로 보이기도 하여 오륙도라고 명명했다고 전해진다. 오륙도선착장 인근에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오륙도스카이워크가 있다.
- 이기대**
이기대는 남구 용호동 산1번지 해안 일대에 걸쳐 있다. 주변에는 신선대와 오륙도가 있다. 군사적전 지면이었다가 1993년부터 개방되어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기대의 끝에는 남구의 유일한 어촌마을인 썬리리가 있다.
- 부경대학교 박물관·백경탑**
부경대학교는 1997년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가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해양, 수산과 관련한 학과가 전담에서 가장 많다. 이와 같은 내력으로 1984년 개관한 부경대학교 박물관은 해양 수산 관련 각종 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다. 백경탑은 원양어선이 나갔다가 회생된 학생들의 넋을 기리고자, 1971년 부산수산대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졌다.
- 황령산 봉수대**
남구 대저3동 황령산에 있는 조선시대의 봉수대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1425년(세종 7)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976년 해초식사와 군부대의 협조로 복원하였다.

10 동해와 남해를 함께 품은 해양도시, 부산의 바닷길 자연유산 문화해설

- 삼성대**
기장군 일광읍 상성리 남쪽 일광해수욕장 해변의 작은 둔덕을 말한다. 기장으로 유배했던 고산 윤선도가 이곳에서 동생과 이별하면서 지은 시의 구절이 애절하다. 이 시는 「고산요곡」에 실려 전한다.
- 시라대**
기장군 기장을 시라리 해변에 있는 돌대 바위이다. 기우재를 지내던 자리에 제룡담(蛟龍潭)이라 새겨져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곳을 처음엔 원왕대(寬甍臺)라 명리다가 기장현장 관직이 둘에 명문을 새긴 후 시라대(侍郞臺)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 해운대**
통일시대 말의 최치원이 놀던 곳이라 더욱 유명해졌는데, 1,000명이 오를 수 있을 만큼 넓었고도 전한다. 동백섬과 어우러진 바다 전망이 전국에서 최고이다. 현재 누리마루에서 해수욕장 방향 철벽에 '해운대'라고 새긴 각석이 있다. 고려와 조선의 문인들이 부산에 오면 물수코스로 이곳에 들러 이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최치원을 회고하며 글을 남겼다.
- 오륙도**
남구 용호동에 있는 명승지이다. 기 기록에, 동쪽에서 보면 여섯 봉우리가 되고, 서쪽에서 보면 다섯 봉우리가 되어 '오륙도'라 칭했다고 한다. 세 번째 봉우리를 '신명마을 주민들이 이를 개조하여 '굴집'이라 부르며 가정집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 태종대**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둔대를 말한다. 옛 기록에, 태조 태종무열왕이 대마도(일본)를 정벌할 때 아기를 세우고 머무르던 곳이라 전한다. 구비전승으로는 '도산국사와 태종대'라는 설화가 유명하다. 해운대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양식 해안 명승지로 손꼽힌다.
- 절영도**
지금 영도와 옛 이름이다. 영도는 땅이 기름지고 풀이 우거졌으며 호랑이가 들오지 못해 말을 기우기에 적당했다. 이곳에서 키운 말이 날래서서 말리면 그림자기 길긴다는 뜻의 지명 유래가 참 흥미롭다. 후삼국시대 건원과 원군이 영도의 땅을 두고만있던 사사가 남아 제비를 더한다. 절영도 구비전승으로 '영도 할매 절영도 널리 알려져 있다.
- 물은대**
사하구 대대동에 있는 둔대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제포와 부산포를 왕래하는 일번지가 경유하던 요충지이기도 하다. 1592년 부산포해전 당시 선봉에서 서서 원경 왜군과 맞서 싸운 녹도만호 정윤의 출몰이 잦던 곳이기도 하다.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호인 다대진 동헌과 유형문화재 제20호인 정문공순약사가 있다.

5 부산의 축스관 영도, 우리나라의 해양 문화를 음미하다

- 어묵(삼진어묵)**
1907년 부산에 처음 어묵 공장이 세워지고, 해방 이후 어묵 공장이 부산에 단지를 이루면서 어묵은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다. 영도에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 제조 가공소'가 있다. 현재 어묵의 고급화 및 세계화 전략으로 또 하나의 음식문화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 영선동매추기념비**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패총기념비이다. 1933년 일본인에 의해 신석기시대 및 청기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해방 이후 도로 개설 등으로 유적이 훼손되었다. 1990년 영도구청에서 기념비를 세워 이곳이 문화유적지였음을 알리고 있다.
- 국립해양박물관**
2012년 개관한 국립해양박물관은 '나의 바다, 우리의 미래'라는 모토로 해양문화, 해양 역사 인물, 항해 선박, 해양 생물 등 해양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박물관 앞에는 아미르공원이, 그 인근에는 국립해양과학기술훈, 국립해양조사원 등 해양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다.
- 동삼동태종전사당**
사적 제266호로 지정된 동삼동태종 유적에 있는 전사당이다. 동삼동태종 유적은 한반도 남해 산악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1929년 일본인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1979년 사적 제266호로 지정되었다. 전사당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전시실은 전국의 산악기 유적들, 제2전시실은 동삼동태종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 동삼 어촌마을**
동삼 어촌마을은 동삼동태종전사당과 이어져 있다. '동삼(東三)'은 상리, 지리, 해리마을을 합친 것으로 영도의 정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곳은 신석기시대부터 어촌마을을 이루며 생활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하리마을에 있는 하리항에서는 물결치는 해녀들을 만날 수 있다.
- 태종대**
부산의 대표적인 명승지 중 하나다. 태종대의 명칭은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이곳에 방문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뛰어난 해양 절경과 다양한 식생이 자라고 있는 울창한 숲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영도동대, 신선대 바위, 태종사, 일본군의 군사시설 등도 볼 수 있다.
- 영도해녀문화전시장**
영도의 종리항에 있다. 전시관 입구에 제주도에서 제작하여 기증한 해녀상이 있다. 1층은 해녀촌으로, 해녀들이 문헌하고 있는데 명계, 돌망게, 소라, 해삼 등이 가득하다. 2층은 전시관으로 천정에 물결치는 해녀상을 비롯하여 해녀에 관한 다양한 사진과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11 강의 줄, 시의 길, 마을의 끝길이 강처럼 흘러 바다가 되는 곳

- 낙동강 대저독방 시화길**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낙동강변 30리 벌꽃길' 야간에 있다. 도산철도 3호선 강서구청에서 내려 구포도 방향으로 10분가량 걸어야 한다. 현재 부산에서 활동 중인 문인들의 서른 한 명의 시화(詩畵)가 전시 중이다.
- 금수현 '그네, 노래비'**
강서구에서 태어나 음악교육 대중화에 기여한 금수현의 노래비이다. 향토애를 고취하고 문화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1992년 강서구청 주도로 건립되었다. 금수현의 차남이자 조카인 금수리가 제작하였다. 강서수동길변 30리 벌꽃길의 초입에 있다.
- 이은상 '낙동강, 시비'**
마산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시조부흥운동을 주도하고, 민족주의 문학 사상의 토대를 구축한 이은상의 시비이다. '낙동강', 시비는 낙동강의 역동적인 물결과 그 연안의 풍경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네', 노래비에 15분가량 걸어 가면 시비를 만날 수 있다.
- 배재항 '오막살이' 시비**
일제강점기 일제에 맞서 31운동 및 농민생존권 투쟁에 매진하고, 해방공간기에는 전국가 건설에 참여했던 배재항 선생을 기리는 시비이다. 선생의 외로운 오막살이 시절을 부각하여 산과 초가집 그리고 밭을 구경하여 시를 풍경을 조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 「故鄉길」 시비와 조영환-이수강 독립지사 기념비**
「故鄉길」 시비는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부산과 경상남도 출신의 재일 한국인들이 고향을 찾은 기념으로 뜻을 모아 1977년에 건립한 것이다. 시비 양쪽에는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인 조영환-이수강 독립지사 기념비가 있다. 두 자리는 모두 강서구 중심이다.
- 조지훈 '왕하상'과 박목월 '나그네, 시비'**
한국문학의 역사에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철학파의 조지훈과 박목월의 시비이다. '왕하상'은 조지훈이 박목월을 생각하며 쓴 시로, '나그네'는 박목월이 조지훈에게 보낸 답시로 알려졌다. 두 시인의 시적 교류, 우정이 낙동강의 서녘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
- 이후홍 '엄마의 품' 시비**
함평 출신이며 부산에서 활동한 아동문학가 이후홍의 시비이다. 동시 '엄마의 품'은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감각적으로 구현해 내고 있다.
- 을숙도 대표와 '모래톱 이야기' 표지석**
부산문학 교류하는 소설가이자 '낙동강의 파수꾼'으로 일컬어지는 김정한 선생의 기념비이다. '모래톱 이야기', 배경이 되는 '조미섬'의 실제 배경이 가까운 곳에 세워진 기념비는 익한 자를 보듬는 선생과 부산 문학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